

▶1면에서 이어짐

신 원장은 “프라이머리에 선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발전 계획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프라이머리는 우리학교 발전 계획과 별개가 아니라 그것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프라이머리를 통한 재정지원이 아닌 교비로 발전계획을 진행하게 된다면 목적지는 같지만 시간이 그보다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부 측은 우리학교의 프라이머리업안 중 다른 대학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을 ‘3트랙 전략’으로 설명했다. 이는 커리큘럼에 있어 세 가지 구성요소를 충족시키는 학교를 신설하겠다는 전략으로, ▲Humanity&Foundation 트랙, ▲Core 트랙, ▲Add On 트랙이 그것이다. Humanity&Foundation 트랙에서는 미학, 우주학, 인공지능학과 같은 기초학문을 다룬다. Core 트랙에서는 좀 더 심화된 전공학문을 다루며, Add On 트랙에서는 기초학문과 전공학문 외에 관심 있는 분야의 과목을 골라 수강할 수 있도록 해 자기주도적 성격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 부총장은 “얼마 전의 알파고, 이세돌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 기술력보다도 창의력 사고가 요구되는 시대”라고 운을 떼며 “학문적 기초인 인문학적 소양과 창의적 미래학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고 이것을 우리 학교에서 시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본부 측과 양 캠퍼스 총학생회 간의 협의 과정은?

지난 4개월 간, 학생대표와 대학본부는 프라이머리에 대해 수차례의 소동위원회와 준비위원회, 비공식 만남을 가져왔다. 프라이머리 논의 초기부터 서울캠 총학은 사업 참여 반대, 국제캠 퍼스(국제캠) 총학은 이원화 문제 해결을 전제로 찬성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애초 다른 입장을 취했다. 사업 제안서 제출이 완료된 지금까지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와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의 태도는 사뭇 달랐다.

서울캠 총학은 사업 논의 초기부터 SNS와 물리적인 시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대여론을 표해왔다. 논란은 사업 제안서 제출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구성원들의 합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한 단과대학에서 학교 측의 갑갑적 서명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 부총장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제출 기한을 앞두고 일부 단과대학 학장님이 조급한 마음에 서둘렀던 것 같다”며 “이에 대해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에게 사과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한 부총장은 “현시점에서는 학교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하며, 주어진 시간까지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비판은 가능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외부 언론에의 입장 표명은 자제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서울캠 총학생회는 지난 1일 총학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학교 프라이머리사업 계획에 대한 찬반투표 시행 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대학 측은 난색을 표했다. 미래정책원 신상협(국제대학원) 원장은 “서울 총학이 인식하는 프라이머리사업은 실제와 차이가 있다”며 “시간의 촉박함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한 부총장은 “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내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변화 사항에 대해 논의해갈 것”이라며 “교수회의, 노동조합, 국제캠 총학, 대학본부 모두 합의를 이뤘는데 (서울캠 총학의 입장)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국제캠 총학 측은 기본적으로 캠퍼스 이원화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에 집중해 대화를 이

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제안서 제출 이전 마지막 집결지인 제4차 소동위원회에서도 국제캠 김병경(체육학 2009) 총학생회장은 “국제캠 학생들은 캠퍼스 이원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한다는 조건 하에 프라이머리사업에 찬성한 것”이라며 “이공계열 학과 증원은 잘못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후에도 서울캠에 위치한 이공계열 학과의 차후 국제캠 이전에 대한 서면약속과 이원화 기준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후 국제캠 총학은 대학본부 측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기존의 안을 수용했다. 신 원장은 문제가 된 ‘데이터과학과’와 ‘바이오헬스산업학과’에 대해 전자는 사회계열 학과와의 연계가 효과적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약학과 의 학계열 학과와의 연계가 필요해 서울캠에 위치하게 된 경위를 설명함으로써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명칭의 경우에는 커리큘럼 비교를 통해 중복학과 논란을 해소했으며, 데이터과학과를 예로 들어 이는 경영대학과 이과대학의 성격에서 신설된 학과이지만 이원화 문제를 고려해 국제캠 소속 ‘미래융합공

학대학’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캠 총학은 결과적으로 제안서에 합의 서명을 했지만 이원화 문제와 관련해 ▲프라이머리사업에 통해 약속받은 이원화 문제 해결 ▲명확한 이원화 체제를 위해 학문별 통합과 캠퍼스 특성화 ▲국제캠 다수의 노후 건물들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학생자치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와 관련해 총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신 원장은 온라인에서 집중적으로 불거진 우리학교의 유사학과 문제와 분·분교 논란 여론에 대해 이야기했다. 댓글 여론을 모두 읽어보고 있다는 신 원장은 “우리학교에는 공식적으로 중복학과가 없지만 유사학과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간 캠퍼스 간에서 (논란되는 학과들이) 커리큘럼의 변화 없이 학과가 인가돼 온 것은 사실이며, 이는 10~20년 전에 학과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발생한 현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 원장은 “우리학교의 아픈 상처를 프라이머리사업으로써 해결해 하나의 학교로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획서에 포함된 ‘서울캠의 이공계열학과 설치’에 대한 학생들의 경계심에 대해 신 원장은 “신설되는 이공계열 학과의 소속을 국제캠 단과대학으로 편성했다”며 “한 단과대학 내에서 중복학과가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후에도 학과의 성격적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회자된 이원화 사안 관련 입장과 프라이머리사업 이후의 계획은?

신 원장은 이원화 기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런던 대학의 경우 여러 개의 캠퍼스가 시내에 분포돼 있어 원하는 전공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학교의 경우 국제캠은 공학계열의 인프라를 토대로 발전하고 서울은 인문·사회계열로 발전하되, 이공계열 신설학과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 교수들이 서울에서 강의하는 것과 같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이 진정한 이원화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 원장은 캠퍼스 특성화와 불명확한 이원화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분법적 구분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측이 위기 때 마다 제시해왔던 ‘중장기적 해결방안’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신 원장은 “유사학과 정리에 관한 문제는 대학본부 측에서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환경 조성 등을 통한 간접적인 유도책을 생각한다”며 “프라이머리사업에 선정됐을 때 생길 자금을 통해 국제캠 이공계열에 대한 투자 이뤄질 것인데, 이는 교수들의 연구비 증액과 시설 개선으로 이어져 이공계열 학과 간 이동에 있어 장기적으로 학과 간의 자발적 합의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이에 더해 작년 말 논란이 됐던 외국어대학의 서울캠 이전에 대해 신 원장은 교지화박물관과 학과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신설될 학과의 공간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캠퍼스 내 신설학과 수용공간에 대해 신 원장은 “서울캠은 Space 21사업의 일환으로 이과대학과 한의과대학 건물을 짓고 있어 공간 부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인데, 문제는 국제캠”이라며 “국제캠에 새로운 건물이 12월 착공 예정이고 2년 가량 소요될 예정이라 그 기간 동안은 새로운 학과의 구성원들이 기존의 멀티미디어관과 생명과학대학건물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KYUNG HEE UNIVERSITY

Global Collaborative 2016 Summer Program

“국내외 석학 및 국제기구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세계 여러나라 학생들과의 교류의 장을 경험하세요!!”

- 프로그램 기간 2016.07.04~2016.07.29, [4주간]
- 개설강의 “Humanity, Civi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에 특화된 20개 강의(GC홈페이지 참조)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원)생
- 신청기간 2016.03.14~2015.04.30(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장학금 경제대학생의 경우 미래문명원 네오르네상스장학 신청 가능(추후 공지에정)
- 문의 미래문명원 Tel: 02-961-0995 Email: summer@khu.ac.kr 홈페이지: http://gaic.khu.ac.kr/gep 페이스북: www.facebook.com/khugc



4월 셋째 주(04.11~04.15) 취업진로

● 캠퍼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접)

행사명	모집부서	일시
동부화재 채용설명회	개인영업, 보성관리, 법인영업, 인사팀, U/W, 상품영업, 자선운동, 경영지원	4.12(화)
상가포로 현지 회사 취업설명회		4.15(금)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경제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다를 참조
- 채용설명회 관련 출석협조전 발급: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 취업특강

특강제목	일시
조직이해와 인사지원서 작성요령 (이정호 교수)	4.12(화) 12:00~14:00
마케팅 실무 - 상품기획 및 브랜드 전략 (최재관 교수)	4.12(화) 15:00~17:00

● 취업진로도 맞춤형 컨설팅 (취업상담)

- 대상: 경제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
- 상세 내용

상담유형	컨설턴트	일시	장소
개인 상담	분야별 컨설턴트 4명	월 ~ 금 (각 컨설턴트별 일정 상이함)	오비스홀 354호~ 제법대대학 107-2호취업
집단 상담	*취업준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홍상기 컨설턴트	4.15(금) 16:00~18:00	청운관 1층 취업진로지원

- 상담 신청자 의무사항: 취업준비도 검사 참여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참조 2회) 참여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날 취소 불가 (상담 당일 전날까지 가능, 취소시 전화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프린트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gc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 위치 청운관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